



##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김재구(감신대)

### 1. 들어가는 말

민수기는 오경에 포함된 다른 책들에 비해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민수기의 내용의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의 인구조사(민 1, 26장), 진배치(민 2-3장), 축도(민 6:22-27), 광야여정(민 11-25장), 불순종과 심판(민 11-14, 16, 20, 25장), 땅 분배 규례(민 34장), 노래와 송전가(민 21:17-18, 27-30), 예언신탁(민 22-24장) 그리고 법(제의법,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 여성상속법, 도피성 제도; 민 15, 18-19, 27, 35-36장)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일관적인 구조의 제시 없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등장하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1)</sup> 마틴 노트(M. Noth)는 이러한 민수기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수기가 통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한 저자의 손에 의해 씌었다든지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책 내용이 엷히고설켜 무질서하다는 점에서 이미 밝혀졌다.”<sup>2)</sup> 심지어 성경의 통일성을 주창하는 정경적 접근을 개진한 브레바드 차일즈(B. S. Childs)조차도 민수기의 편집자들이 문학적인 구성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기술할 정도로 민수기는 일관된 구조체시가 힘겹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sup>3)</sup>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뒤로하고 1985년에 출간된 한 민수기 개론서가 민수기의 구조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 올슨(Dennis T. Olson)의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라는 책이다.<sup>4)</sup> 이 책에서 올슨은 민수기의 구조를 연구한 33명의 학자들이 18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을 들며 새로운 대안으로 민수기의 거시구조를 두 번의 인구조사를 따라서 분류해야 할 것을 제

- 
- 1) G.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xxiv; Walter Riggans, *Numbers* (DSB;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2; R. Rendtorf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John Bowden(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86), 147; B. A. Levine, *Numbers 1-20* (AB; New York/London: Doubleday, 1993), 631, 634; 이원우, “민수기의 거시구조: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23; 우택주,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 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68. 우택주는 이런 민수기의 복잡성은 자료들의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에 자료 비평적 연구인 역사 비평적 고려가 문학구조의 이해를 위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를 시대 순으로 가르는 것은 민수기의 통일성 있는 구조 연구에 도움이 아닌 난점을 제공해 줄 뿐이란 점에서 고려에서 제외된다. 서로 시대가 다른 자료들의 모음이기에 통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최종본문인 현재 형태의 의미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마틴 노트, 『민수기』 (이경숙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6. 원제는 M. Noth, *Das vierte Buch: Numeri* (ADT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 3) B. S. Childs,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195.
  - 4) Dennis T. Olson,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시했다.<sup>5)</sup> 즉 출애굽 구세대의 인구조사인 1장을 기점으로 그 다음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나타나기 전까지인 1-25장을 구세대의 이야기로 보고, 그 다음 신세대의 인구조사부터 민수기의 끝까지인 26-36장을 신세대의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분석을 통해 민수기 전체의 주제를 책 제목처럼 “구세대의 죽음과 신세대의 탄생”으로 규정짓는다.

이 구조에 따르면 민수기 1-25장까지는 모두가 출애굽 구세대의 이야기가 되며, 그 이후는 모두 신세대의 이야기로 편입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1985년 이후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올슨의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들의 민수기 주석서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이에 대한 역반응도 만만치 않다. 민수기를 구세대의 이야기와 신세대의 이야기로 구분 짓는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구세대와 신세대를 구분 짓는 범위인 민수기 1-25장과 26-36장에 대한 올슨의 견해를 반박하고 민수기에 나타난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통해 민수기의 거시구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역사비평적인 쪼개기가 아닌,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입장을 따르며, 민수기뿐만 아니라 오경과 나아가 육경 전체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

5) 윗글, 35.

6) 송병현, 「민수기」(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60-6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민수기」(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5; R. D. Cole, *Numbers* (NAC 3B;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40-42; R. Gane, *Number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4).

## 2. 올슨의 견해에 대한 반박 이론들

민수기의 내용을 구세대의 이야기와 신세대의 이야기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민수기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적인 등식처럼 맞아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민수기 1-25장 안에도 구세대가 아닌 신세대를 위한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민수기 15장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구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심판으로 모두 죽음을 이룰 것을 민수기 14장에서 선포하셨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는 법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법을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2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수기 15장의 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인 것이다. 물론 구세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 전체가 신세대든지 혹은 그 땅에 들어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또한 구세대 레위인들이 주축이 된 반역으로 인한 실패(민 16장) 뒤에 민수기 17-19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지킬 영구한 법을 주시는 것 또한 광야에서 사라져갈 구세대를 위함이 아니라 역시 신세대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다(민 18:8, 11, 19, 23; 19:10, 21). 이와 같이 민수기 1-25장 안에는 구세대만이 아닌 신세대에게 해당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올슨의 구조적 분류법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7) P. J. Budd, *Numbers* (WBC 5; Waco, Texas: Word Books, 1984), 168.

웬함(G. J. Wenham)은 올슨이 제시한 두 부분 사이에 나타난 병행 관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한 가지 중요한 생각거리를 질문으로 던진다.

인구조사	1-4장	26장
여인들에 관한 법	5:11-31	27:1-11
맹세에 관한 법	6:1-21	30장
제물에 관한 법	15장	28-29장
정탐과 땅 배분 목록	13:4-16	34:17-29

그 질문은 “얼마나 많은 자료가 위에서 제안한 구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또 얼마만큼의 자료가 어울리지 않아 생략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sup>8)</sup> 이 두 분류법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위 도표만 보아도 병행되는 내용이 주로 민수기 1-13장과 26-34장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올슨이 구세대의 내용이라고 명기한 민수기 14-25장의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이다.

스카(J. L. Ska)는 올슨의 구세대와 신세대의 두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두 분류법을 제시한다. 첫 부분은 ‘원정준비’(민 1:1-10:10)이고 둘째 부분은 ‘원정실행’(민 10:11-36:13)이다. 그의 주장은 이미 민수기 21장 21-26절의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 내용 속에 빼앗은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는 언급을 통해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 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민 21:25, 31).<sup>9)</sup> 비록 요단 동편일지언정 땅에 정착하였다는 보고는 분명 구세대에게는 어울리지

8) 고든 웬함, 「모세오경」(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165. 원저는 G. J. Wenham, *The Pentateuch* (EOT; London: Bath Press, 2003).

9)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 입문: 오경 해석을 위한 지침」(박요한 역) (서울: 성바오로, 2009), 80-84. 원저는 Jean Louis Ska, *Introduction la lecture du Pentateuque: Cles pour l'interpretation des cinq premiers livres de la Bible*(Bologna: Dehoniano, 1998).

않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광야를 떠돌다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민 14:29, 35). 그렇다면 민수기 21장의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과 그 땅에 정착하는 사건은 분명 신세대의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중호는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가 비록 민수기 1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며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민수기 26장 이전부터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예로 민수기 21장부터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이 전개되는데 그 전투는 분명 구세대가 아닌 신세대의 전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든다.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보고되고,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지 40년째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민 33:38) 이미 38년 정도의 광야여정이 지나간 것이다. 이 정도 세월이면 가데스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반역한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이미 최소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평균수명이 40세 정도임을 감안하면<sup>10)</sup> 민수기 21장의 전쟁의 승리는 노인이 된 구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일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것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나이든 구세대가 벌이는 짓이라기보다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방종일 것을 감안할 때 신세대의 소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중호는 다음과 같은 민수기의 거시구조를 제시한다.<sup>11)</sup>

10)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4), 119-120. 볼프는 BC 926-597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린 다윗 왕가의 14명의 왕들의 수명을 조사하여 그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겨우 44세 라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잘 양육된 왕들이 이 정도의 평균수명이라면 유아 사망률이 특히 높은 일반 평민들의 경우는 훨씬 더 낮을 것이 분명하다.

11) 정중호, 「새로운 해석과 설교를 위한 민수기 I」(한국구약학총서 4;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30-31.

- I. 민 1:1-14:45 약속의 땅 정복실패
  - A. 민 1:1-10:10 준비과정
  - B. 민 10:11-14:45 정복실패
- II. 민 15:1-36:13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
  - A. 민 15:1-20:29 출애굽 세대의 새로운 준비(가데스, 호르)
  - B. 민 21:1-36:13 새로운 세대의 준비(호르에서 모압평지까지)

이 구조는 구세대의 반역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5-20장까지 계속됨에도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렇지만 민수기 21장부터를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의 출발선으로 보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원우는 이러한 정중호의 주장을 더욱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의견은 특히 올슨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수기 21장 1-3절이 세대 전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sup>12)</sup> 그는 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광야 소멸에 대한 사형심판은 민수기 14장 26-35절에 선포되었고, 그 실행은 민수기 20장 1-29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본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세 단위(1-13; 14-21; 22-29)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출애굽 구세대의 철저한 결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첫 단위(민 20:1-13)는 구세대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의 죽음과 모세와 아론의 거역과 이들의 가나안 진입 불가라는 심판 선고를 통해 민수기 14장에 선포된 구세대와 같은 운명에 처한 지도자들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 다음 단위(민 20:14-21)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광야 길을 따라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 또한 구세대의 운명과 동일한 모세

12) 이원우, *룻길*, 129.

와 아론의 길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구세대 또한 하나님께 광야 40년 심판 선고를 듣자마자 가나안에 진입하려는 전쟁을 치르고 패배하여 결국 광야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듯이(민 14:39-45) 모세와 아론 또한 에돔을 가로질러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우회하여 광야 길로 쫓겨나는 비교가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세 또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마지막 단위(민 20:22-29)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데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며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기법이라 본다.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는 것은(민 33:39) 그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는 점에서 같은 해에 벌어질 모세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구세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세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과 더불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내용은 신세대가 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sup>13)</sup>

이를 통해 이원우는 민수기 20장이 구세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수기 21장 1-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구세대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호르마는 진멸이 내정된 구세대에게 징벌적 의미가 있던 장소였기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을 든다. 둘째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민수기 20장에 이미 40년의 광야여정이 끝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세대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점에서 구세대의 이야기일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가나안 족과의 전투가 등장하고(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지속적인 승리로 장식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승리들은 결코 거역한 구세대의 것일 수 없고, 신세대만이 할

13) 윌클, 130-134.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든다.<sup>14)</sup> 이러한 논증을 통해 이원우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구세대의 죽음과 신세대의 탄생”으로 규정한 올슨의 견해를 뒤로하고 구세대를 전멸코자 심판하신 정의의 하나님과 신세대를 일으키셔서 땅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으로 본다.<sup>15)</sup>

### 3. 민수기의 구조를 찾아서

이와 같이 민수기를 1-25장과 26-36장의 구세대와 신세대의 이야기로 나누는 올슨의 분류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 민수기 21장 1-3절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를 통해 민수기의 거시적인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이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민수기 안에서, 그 다음은 오경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경 속에서 주요 내용을 비교하며 고찰할 것이다.

#### 1) 민수기 안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

민수기 20장은 구세대의 여성과 남성 대표들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 진입이 거부된 모세의 임박한 죽음 예고를 통해 구세대의 끝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구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는 선고는 이미 민수기 14장에 내려졌다. 그런데 왜 민수기 20장까지의 경과가 필요했는가는 구세대의 광야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답이 주어진다.

---

14) 윌슨, 134-137.

15) 윌슨, 140.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에 있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단계의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쪽 테두리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 안쪽으로 레위 지파의 진영이 감싸고 있고, 가장 안쪽은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성막의 거룩을 지키고 있다. 열두 지파가 무너져도 레위인이 거룩을 사수하는 보루가 될 것이며, 레위 지파가 무너져도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철저하게 거룩을 지킨다면 회복의 희망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대의 무너짐은 이 모든 단계가 다 무너질 때 그 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듯이 구세대의 시작과 끝은 거역으로 시작해서 거역으로 그 끝에 이르고, 세 단계의 진영이 무너져 가는 것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민 11-20장).

구세대 광야여정의 시작점에는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사건을 구세대 전체 이야기의 요약판처럼 제공하고 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주어진 다베라 사건이다.<sup>16)</sup> 단 세 절로 요약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광야여정에서 진을 친 장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민 33:15-16)에서 그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광야여정에서 구세대가 행할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찌될지 요약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sup>17)</sup> 먼저 불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심판이 단행되고, 백성이 부르짖고, 모세가 중재하여 심판이 멈추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상스런 점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있을 구세대의 불평과 원망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임을 강조

16) J. F. Priest, "Etymology", Keith Crim(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 (Nashville: Abingdon, 1976), 293-295; B. S. Childs, "The Etiological Tale Re-examined", *VT* 24 (1974), 393-397.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장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7) T.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201; Rolf P. Knierim/G. W. Coats, *Numbers* (FOLT 4;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135, 171. 코니림과 코츠는 민수기 11:1-3절을 'general example'로 명명하고, 그 뒤를 따르는 구세대의 이야기인 민수기 11:4-14:45절의 이야기들을 'specific examples'로 다룬다.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진영 끝을 살랐다는 것 또한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진영 안으로 타들어갈 미래를 예시한다.<sup>18)</sup> ‘다베라’(불로 태우다)라는 지명처럼 심판의 불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불어 진영 전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감된다.

구세대 열두 지파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사건으로 종결된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민 11장), 미리암과 아론의 지위에 대한 불평(민 12장)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족에 대한 불평(민 13-14장)으로 모두 불평의 근거가 없다. 이미 만나를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시며, 미리암과 아론은 구세대의 대표자로서 여성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각각 맡고 있었고, 가나안 땅의 거인족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애굽을 치시는 것을 통해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결국 구세대에 대한 진멸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진영 끝을 살랐던 불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진영을 다 불살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불순종과 심판: 구세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주축이 됨 (민 11-14장)	신세대 이스라엘 위한 법으로 마감: 미래 희망을 제시함(민 15장)
---	--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세대는 이미 무너졌다. 진영의 바깥쪽 테두리가 무너진 것이다. 좋은 삶든 이제 40년 광야 여정이 내정되어 있다.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기나긴 광야 40년 여정을 민수기는 오로지 단 두 사건으로 축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일 것이 틀림없다. 이미 구세대

18) Martin Sicker, *Reflections on the Book of Numbers* (Bloomington, IN: AuthorHouse, 2015), 122-123. 시커는 진영 끝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로 공동체의 주변인들이나 중대한 잡족들을 포괄하는 의미라 할 수 있으며, 불로 태운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두 부류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일 것임에 틀림없다. 구세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설 것이며(민 16-19장) 그 다음은 분명 구세대 최고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이 연루된 이야기일 것이다(민 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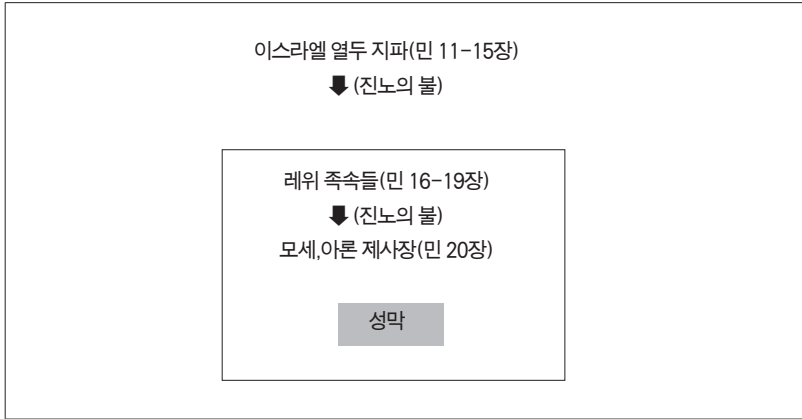
먼저 구세대 레위인에 대한 반역 또한 이들이 반역으로 광야에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그 마감은 역시 신세대 레위인에 대한 법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란 점에서 구세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동일한 전개를 보여준다.

<p>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불순종과 심판: 구세대 레위인들이 주축이 됨 (민 16-17장)</p>	<p>신세대 레위인 위한 법으로 마감: 미래 희망을 제시함(민 18-19장)</p>
--	--

이제 구세대에서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남은 존재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운명에 도달할 것인가?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다음 이야기는 이들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다.

<p>모세와 아론의 불순종과 심판: 구세대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이 주축이 됨 (민 20:1-21)</p>	<p>신세대 대제사장(엘르아살) 세우는 것으로 마감: 미래 희망을 제시함(민 20:22-29)</p>
--	--

이렇게 하여 구세대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다베라에서 진영 끝을 사르는 것으로 시작된 진노의 심판이 진영의 바깥 테두리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태우고, 안쪽 테두리인 레위인을 태우고, 마침내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옮겨붙어 진영 전체가 불에 타 무너진 것이다.



구세대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구세대 이스라엘이 불타는 상황에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세대가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구세대 레위인들이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곳에 미래의 레위인들이 지킬 영구한 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민 18-19장). 아론의 죽음 뒤에 엘르아살이 승계했다는 것 또한 신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민 20:22-29). 이와 같이 구세대가 무너지는 이야기들인 민수기 11-20장 안에도 구세대만이 아닌 미래 세대를 향한 기대 또한 숨 쉬고 있다.

이렇게 구세대가 철저히 그 끝에 이른 다음에 단 세 절로 이루어진 한 사건이 펼쳐진다(민 21:1-3). 바로 ‘호르마’ 사건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은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호르마’ 사건은 구세대의 광야 여정의 요약판인 ‘다베라’ 사건과 대조되는 신세대 여정의 요약판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sup>19)</sup>

19) D. L. Stubbs, *Number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9), 114, 163-164. 스티브스는 민수기

민 1-10장	민 11-25장		민 26-36장
구세대의 인구조사와 행진 준비	* 11:1-3 구세대 미래 요약: 다베라(불타다)	* 21:1-3 신세대 미래 요약: 호르마(진멸)	신세대의 인구조사와 땅 정복 준비

다베라가 ‘불타다’라는 뜻으로 구세대가 모두 불타 사라지는 소멸을 암시한다면, 호르마의 뜻은 ‘진멸’이란 점에서 구세대의 진멸을 뒤로하고 이제 신세대가 가나안 족을 진멸할 미래를 기대케 하는 것이다.

다베라와 호르마의 반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세대의 특징이 더욱 극적으로 대비됨을 살펴볼 수 있다.

구세대의 회의적인 시작(민 11:1-3)	신세대의 희망적인 시작(민 21:1-3)
① (11:1a) 악한 말로 원망함(정당한 사유 없음)	① (21:1) 적들의 공격을 받고 정면대치 했음에도 원망하지 않음
② (11:1b)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보내 진영 끝을 사르심	② (21:2)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진멸의 법을 시행하겠다는 서약
③ (11:2a)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	③ (21:3a)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모세가 등장하지 않는다)
④ (11:2b)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불이 꺼짐	④ (21:3b) 하나님의 도움과 순종함의 진멸
⑤ (11:3) 지명의 변화 - 다베라(불타 - 이스라엘이 소멸됨)	⑤ (21:3c) 지명의 변화 - 호르마(진멸 - 이스라엘이 진멸시킴)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진 배치에서 분리된 이야기들이다. 이 두 지명이 진 배치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민 33:15-16, 40-41). 민수기 11장 1-3절이 구세대의 광야 여정

11:1-3절을 민수기 전체의 'turning point'로 인식한다. Knierim/Coats(윗글, 136, 236). 또한 동일한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림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점에서 전환점이지만 이것을 신세대의 승리가 아닌 구세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의 전형적인 요약판이라는 것은 이미 다루었다. 그렇다면 민수기 21장 1-3절의 호르마 사건은 분명 신세대의 전형적인 요약적 이야기일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민수기 21장 1-3절에 나타난 승리는 시내 산을 출발한 이후로는 처음 등장하는 승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리고 모세의 중재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단합된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구세대의 이야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야기의 돌출 또한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지리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점은 이 사건 전후의 지리적인 위치만 살펴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A. 민 20:22-29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론이 죽음
- B. 민 21:1-3 호르마에서의 가나안 족 진멸의 승리
- A'. 민 21:4-5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행진

어느 모로 보나 호르마에서의 승리 이야기는 호르 산 이야기의 사이에 삽입된 듯하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지 않아 홍해 길로 다시 광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가운데 가나안의 접경지대인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러한 지리적인 배열은 진행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제의 전환에 따른 배열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즉 구세대와 신세대의 세대교체를 제시하려는 의도적인 배열로 볼 수 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된 구세대 이스라엘의 행적과 이제 막 불순종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를 모세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 민수기 21장 1-3절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

20) G. J. Wenham, *Numbers: An Introduction & Commentary* (Tyndale OT Commentaries 4; Downers Grove, IL: IVP, 1981), 154.

구세대의 실패와 그 이후(민 13-15장)	모세와 아론의 실패와 그 이후(민 20장)
(민 14:11) 여호와의 믿지 못함 곧 거룩을 이루지 못함	(민 20:12a) 여호와의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
(민 14:23)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 실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민 20:12b) 약속의 땅으로 회중을 이끌지 못할 것 - 실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민 14:25)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피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 명령 (민 14:39-45) 호르마-가나안에 공격당함 (이후) 구세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감	(민 20:20-21) 에돔을 피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갈 수밖에 없음 (민 21:1-3) 호르마 - 가나안을 진멸함 (민 21:4-5)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감

민수기 14장에서 구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난 후에 민수기 15장은 다음 세대를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거룩함을 명시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민 15:40). 이를 통해 분명해 지는 것은 믿지 못한은 곧 거룩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민 20:12) 구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실패를 끝으로 구세대가 끝에 이르고 결국 모세 또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그 자신은 물론 구세대 전체를 이끌게 된다. 구세대 이스라엘이나, 지도자 모세나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수기 21장 1-3절의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을 진멸하는 사건이 삽입된다.

그렇다면 민수기 21장 1-3절의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곧 구세대의 실패를 끝내고 신세대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리적인 갈등요소가 등장할지라도 신세대의 희망적인 출

발을 알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호르마라는 장소는 구세대의 실패가 신세대의 성공으로 바뀌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세대는 가나안인과 아말렉인들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진멸의 위기에 몰렸지만 그 때까지는 그곳의 지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민 14:39-45). 그러나 신세대가 가나안 족을 진멸하면서 그 장소가 호르마라는 정확한 지명이 붙여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진멸이 아니라, 가나안의 진멸이란 점에서 신세대가 바른 지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구세대에게 호르마는 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심판 선언인 이스라엘의 진멸이 실행되는 시작점이었다면(민 14:39-45), 신세대에게 호르마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세대의 시작점은 민수기가 속해 있는 오경 속에서의 비교와 땅 약속의 성취인 여호수아서까지를 포괄하는 육경 속에서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2) 오경 속에서의 비교 – 민수기와 신명기의 비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불리며 모세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세대를 향한 고별설교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교훈은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sup>21)</sup> 이를 입증하듯 신명기 1-3장은 민수기에 나타난 구세대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신세대에게 생명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수기와 신명기의 비교는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 또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21) 성기문,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의 구조와 신학연구」(서울: 솔로몬, 2009).

민수기 20장	신명기 2-3장
(민 20:14, 23; 21:4)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진행함	(신 2:1-8) 에돔을 우회하여 진행함
(민 21:11) 모압 앞쪽을 지나	(신 2:9-12) 모압은 지나서
(민 21:12)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נַחַל סֵרֵט 나할 제레드/세렛 시내)에 진을 쳤고	(신 2: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נַחַל סֵרֵט 나할 제레드/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신 2:14-15)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구세대의 군인들이 모두 죽었다.
(민 21:21-32)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정복함	(신 2:24-37)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정복함
(민 21:33-35)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함	(신 3:1-11)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함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세렛 시내(혹은 세렛 골짜기)<sup>22)</sup>를 건너기까지 구세대가 모두 진영 중에서 멸망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만약 구세대의 이야기가 민수기 1-25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올슨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오경 속에서 내용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요단 강 동편 지역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민수기는 구세대와 함께, 신명기는 신세대만이 정복한 것이 되는 충돌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노트(M. Noth)의 주장인 4경(창세기-민수기)

22)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인 נַחַל(나할)이 개역개정 성경에 '골짜기' 혹은 '시내'로 번역된다. 이것은 '나하르'가 '영구적인 시내'(permanent watercourse, river)라는 점과 달리, '나할'은 우기와 건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우기 때는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가 되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 골짜기가 된다는 점에서 '골짜기'와 '시내' 둘 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동일한 장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L. A. Snijders, "na al", G. J. Botterweck/H. Ringgren/H.-J. Fabry(ed.),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X;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335-340.

과 신명기역사신학(신명기-열왕기하)이 별개의 묶음으로 서로 신학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는 가설을 따른다면 이런 모순점도 다른 자료로 인한 것으로 돌리면 된다.<sup>23)</sup> 그러나 오경의 통일성은 물론, 육경 심지어 ‘주 역사’(The Primary History)로 불리는 9경(창세기-열왕기하)의 통일성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모순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sup>24)</sup>

그런 점에서 올슨의 주장은 과기될 수밖에 없다.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 세렛 골짜기(시내)를 건너는 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완전히 교차하는 정점이 된다. 그렇다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발생한 먹을 것, 마실 것과 연관된 행진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발생한 불뱀 사건은 구세대가 연루된 마지막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민 21:4-9). 이는 신세대의 긍정적인 시작을 알리는 민수기 21장 1-3절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을 보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불뱀 사건은 전형적인 구세대의 불평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민수기 11장 1-3절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① 불평 - 길의 거침, 마실 것, 먹을 것, ② 하나님의 분노와 처벌 - 불 뱀 보내심, ③ 모세의 중재 - 모세의 백성 위한 기도 그리고 ④ 처벌의 유예 - 뱀을 보는 자 치유. 이 거역이 광야에서 벌이는 마지막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구세대의 마지막 저항은 가장 강력한 요소를 품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주로 모세와 아론을 향했다면(민 12:1; 14:2) 이제는 백성이

---

23) 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B. W. Anderson(tra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10-19.

24) D. N. Freedman, *The Unity of the Hebrew Bib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프리드만은 처음으로 9경을 뜻하는 ‘The Primary History’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김도형이 소논문을 통해 9경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주장했다. 그는 9경을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라고 명명한다.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55-190.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민 21:5). 원망 대상의 선두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왜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렇게 고통만 안겨주느냐는 불평인 것이다. 애굽에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광야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의 불평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저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세대는 지속적인 승리를 체험한다. 광야에서 인도와 공급을 받고, 감사 찬양을 올리며(민 21:10-20),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넓힌다(민 21:21-35).

이처럼 세렛 골짜기(시내)를 건너면서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되며, 세대교체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민수기 21장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교차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명백한 증거는 또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육경 속에 나타난 이중 구조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육경 속에서의 비교 –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구조

육경 전체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신세대를 향한 이방인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세대의 출발선인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민수기 21장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나타난다. 애굽의 바로 왕(출 1장)처럼 모압 왕 발락(민 22장)이 이스라엘로 인해 동일한 고민 앞에 선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스라엘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세대 다 그 출발은 지속적인 생육과 번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바로 왕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세 단계의 작전을 감행하고, 발락 또한 점술가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세 번에 걸

쳐 저주하려고 시도한다.<sup>25)</sup> 그러나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된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두 상황 다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마감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것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애굽 왕 바로의 두려움 (출 1:9-12)	바로 왕의 대책 3단계 (출 1:11-22)	결과 (출 2:1-10)
① 출 1:9a 우리보다 많고(כָּרַב רַב) 라브) ② 출 1:9b 강하다(כָּרַב אֶפְרַיִם) 아쭘) ③ 출 1:12 더욱 번성하여 근심하여(כָּרַב קִרְבָּן) ④ 출 1:16, 22 죽이라	① 1단계(출 1:8-14) - 노동으로 학대 - 학대 받을수록 번성 ② 2단계(출 1:15-21) - 산파들을 통하여 - 히브리 여인은 강건함 ③ 3단계(출 1:22) - 나일 강에 던지라 - 사내아이들 강에 던짐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의 탄생 - 이 모든 과정이 구세대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출 2:23-25)
모압 왕 발람의 두려움 (민 22장)	발람 왕의 대책 3단계 (민 23-24장)	결과 (민 24:10-17)
① 민 22:3 이스라엘이 많음(כָּרַב רַב) 라브) ②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כָּרַב אֶפְרַיִם) 아쭘) ③ 민 22:3 번민하나라(כָּרַב קִרְבָּן) ④ 민 22:6 저주하라	① 1단계(민 23:1-12) - 발람에게 저주 - 야곱의 티끌 셀 수 없음 ② 2단계(민 23:13-26) - 발람에게 저주 -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③ 3단계(민 23:27-24:9) - 발람에게 저주 -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	발람이 미래를 예시함 - 모압과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한 별의 탄생 예고 - 이 모든 과정이 신세대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25) 이윤경, "타자화 되어 가는 모압인 선지자 발람", 「구약논단」 51집 (2014년 3월), 122-149; 윤동녕, "민수기 22-24장에 표현된 발람의 역할 연구",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205-229. 이 학자들의 연구는 발람이란 존재의 선악에 관해 고민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발람 이야기의 구조적인 위치와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26) 존 H. 세일햄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 (김동진/정종하 공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336-338. 원제는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2). 세일햄머는 이러한 병행구조가 구세대와 신세대의 비교가 아닌, 구세대의 삶 속에서 펼쳐진 것으로 생각한다. 민수기 25장의 싯밈에서의 실패를 "옛 지도자들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거한다(윗글, 344).

이렇게 구세대를 향하여 바로 왕이 가졌던 두려움을 동일하게 모압 왕 발락이 신세대를 향하여 갖게 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세대를 향해서나, 신세대를 향해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움으로(출 1:7; 민 22:4)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아직도 그 결론에 이르지 않았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인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낼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세대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육경 속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이야기가 만들어 내는 이중 구조를 살펴보면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구세대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부여받듯이, 신세대 또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신 5:1-5), 법을 부여받을 것이다(신명기 법). 그리고 구세대가 홍해를 건너며 이집트와의 결별을 이루었다면, 이제 신세대는 요단 강을 건너며 광야의 모든 불순종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을 이룰 것이다. 구세대가 이집트를 탈출했다면, 신세대는 그 탈출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에 진입하여 전쟁을 치르고,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실현인 에덴의 회복과 완성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명은 천지창조에 주어진 인간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소명-창 1:28)	출 1-18장	출 19-레 25장	레위기 26-27장	민 1-20장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소명-창 1:28)
	* 출애굽 구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행동(바로 왕과 애굽 인들에게) (바로 1:8-2:10) ① 많고 ② 강하니 ③ 근심하여 ④ 죽이라 - 모세 탄생	시내 산에서의 언약	(언약의 결론) 순종-축복 불순종- 저주  * 레 26:46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에 모세를 통하여 세 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언약의 실행  구세대의 땅 정복 실패 - 미리암, 아론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 예시 (구세대의 진멸)	
	민 21-36장	신 1-27장	신명기 28-34장	수 1-24장	
	* 광야 신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구 원행동(호르마,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발락 22:1-24장) ① 많고 ② 강하니 ③ 번민(근심)하고 ④ 저주하라 - 한 별 탄생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언약의 결론) 순종-축복 불순종- 저주  * 신 29:1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명령하여 모 압 땅에서 그들과 세 우신 언약은 이러하 니라	언약의 실행  신세대의 땅 정복 성공 (신세대의 정착)	

라를 이루기 위해 출발한 구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었고, 이제 그 사명은 신세대에게 넘어갔다. 신세대에게는 애굽과 대조되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펼치는 길을 이루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의 오경을 거쳐 여호수아서까지 이

르러 그 한 단락을 마감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를 출발선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여호수아까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길을 걸어간다. 구세대의 실패를 딛고 신세대는 동일한 과정을 순종과 승리로 장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대 과업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마지막 남은 과업인 ‘다스리라’는 사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스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시내 산 법, 신명기 법)에 바탕을 둔 삶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기 이후로 이러한 말씀에 바탕을 둔 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지느냐, 아닌가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민수기는 이렇게 거대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 구세대와 광야 신세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sup>27)</sup> 그 교체는 울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수기 26장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1장부터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민수기의 거시구조를 그려볼 수 있다.

### 3. 민수기의 거시구조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인 1-10장의 인구 조사와 행진준비, 중반부인 11-25장의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구세대가 진멸되고 신세대가 서게 되며, 후반부인 26-36장은 신세대의 인구 조사와 가나안 땅 정복준비가 이루어진다. 전반부의 구세대의 인구 조사와 순종적인 행진준비는 후반부의 신세대의 인구 조사와 순

---

27) Wenham, 윗글, 15-18.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양상의 구조적인 반복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반복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비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중축구와 평행을 이루고 중심에는 구세대의 불순종과 멸망이 신세대의 순종과 승리와 대칭을 이룬다. 역사의 중심을 거역과 불순종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구세대의 이야기에서 신세대의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중심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이 됨에 틀림없다.

민 1-10장	민 11-25장		민 26-36장
	민 11-20장	민 21-25장	
구세대의 인구조사와 행진 준비	11:1-3 구세대 불순종의 서론적 이야기	21:1-3 신세대 순종의 서론적 이야기	신세대의 인구조사와 땅 정복 준비
명령에 대한 순종 기대	11:4-20:29 구세대의 실패와 신세대 향한 기대	21:4-25:18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승리	명령에 대한 순종 기대
순종과 불순종 여부는 광야에서 결정	불순종과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		순종과 불순종 여부는 가나안 땅에서 결정

중심에 위치한 민수기 11-25장은 이처럼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특히 21장 1-3절은 구세대의 출발인 11장 1-3절과 대칭이 되며 신세대의 희망적인 출발선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점에서 광야는 불신앙과 신앙이 가려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인 ‘בְּמִדְבָּר’ (베미드바르/광야에서)는 깊이 숙고해볼 만하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예배자(거룩한 자)와 배교자(부정한 자)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는 장소이기 때문이다.<sup>28)</sup>

28) Childs, 윌글(1979), 199. 차일즈는 민수기의 주요 주제가 '거룩한 자'(the holy)와 '속된 자'(the profane)를 구별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 4. 나가는 말

민수기를 1-25장과 26-36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세대의 죽음과 신세대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요약 정리한 올슨의 주장은 19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민수기 연구에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획기적인 결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민수기 1-25장이 구세대의 이야기이며, 26-36장이 신세대의 이야기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세대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구세대의 끝이 25장이 아니라, 20장에서 결론에 이르고, 21장에서 신세대의 희망적인 출발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민수기 안에서의 구조비교, 오경 안에서의 구조비교, 나아가서는 육경 안에서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먼저 민수기 안에서의 비교는 민수기 11장 1-3절이 21장 1-3절과 비교 대조되며 구세대의 불평과 거역의 역사와 신세대의 확신과 순종의 역사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수기 11장 1-3절은 진영 끝자락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주며, 그 불이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하지만 계속적인 불순종과 거역은 진영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암시를 제공한다. 이를 입증하듯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무너지고, 그 다음은 레위 지파가 반역으로 무너지며, 마침내 모세와 아론까지 무너지며 진영 전체가 소진되며 구세대가 민수기 20장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오경 안에서 신명기와의 비교로 이스라엘이 세렛 시내를 건너며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된다는 신명기의 분명한 선언(신 2:13-15)을 통해 민수기 2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이 세대교체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경 안에서의 구조 비교는 먼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아우르고, 그 다음은 육경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두 이야기의 출발과 결론까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느꼈던 구세대를 향한 두려움(땅

고, 강하고, 근심하여, 죽이라함)이 동일하게 모압 왕 발락이 신세대를 향하여 느끼는 두려움(많고, 강하고, 근심하여, 저주하라함)과 문학적 인 일치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벌이는 세 단계의 행태와 그 결과인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인물의 탄생에 대한 것도 일치된다. 육경 속에서 이방인들도 두려워하는 동일한 출발선을 가진 구세대와 신세대는 그 다음에 시내 산과 모압 평지에서 각각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선고를 듣고, 구세대는 민수기 11-20장에서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서 제외되는 저주의 길을, 신세대는 여호수아 1-24장까지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길로 그 상반되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비교 대조를 통해서 분명해 지는 것은 민수기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세대교체는 올슨이 주장하는 25장과 26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장에서 21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단순히 구세대의 죽음과 신세대의 탄생이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러한 갈림길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순종으로 부정된 것이 되어 진멸에 이르는 배교자가 될 것인가, 순종으로 거룩을 실현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의 질문인 것이다.

## 5. 참고문헌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55-190.

고든 웬햄, 「모세오경」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원제 G. J. Wenham, *The Pentateuch* (EOT; London: Bath Press, 200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민수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

-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마틴 노트, 「민수기」 (이경숙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원  
제 M. Noth, *Das vierte Buch: Numeri* (ADT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 송병현, 「민수기」 (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성기문,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의 구조와 신학연구」 (서울: 솔로몬,  
2009).
- 이원우, “민수기의 거시구조: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이윤경, “타자화 되어 가는 모압인 선지자 발람”, 「구약논단」 51집  
(2014년 3월), 122-149.
- 우택주,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 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64-194.
- 윤동녕, “민수기 22-24장에 표현된 발람의 역할 연구”, 「구약논단」 50  
집 (2013년 12월), 205-229.
-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 입문: 오경 해석을 위한 지침」 (박요한 역)  
(서울: 성바오로, 2009). 원제 Jean Louis Ska, *Introduction à la  
lecture du Pentateuque: Clefs pour l'interprétation des  
cinq premiers livres de la Bible* (Bologna: Dehoniano,  
1998).
- 정중호, 「새로운 해석과 설교를 위한 민수기 I」 (한국구약학총서 4; 서  
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 (김동진/정충하 공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원제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2).

-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 Budd, P. J., *Numbers* (WBC 5; Waco, Texas: Word Books, 1984).
- Childs, B. S., "The Etiological Tale Re-examined", *VT* 24 (1974), 393-397.
- \_\_\_\_\_,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ole, R. D., *Numbers* (NAC 3B;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Freedman, D. N., *The Unity of the Hebrew Bib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Gane, R., *Number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4).
- Gray, G.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 Knierim, Rolf P. /G. W. Coats, *Numbers* (FOLT 4;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Levine, B. A., *Numbers 1-20* (AB; New York/London: Doubleday, 1993).
-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B. W. Anderson (tra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 Olson, Dennis T.,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Priest, J. F., "Etiology", Keith Crim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 (Nashville: Abingdon, 1976), 293-295.
- Rendtorff, R.,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John

- Bowden(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86).
- Riggans, Walter, *Numbers* (DSB;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 Sicker, *Martin Reflections on the Book of Numbers* (Bloomington, IN: AuthorHouse, 2015).
- Snijders, L. A., "naḥal", G. J. Botterweck/H. Ringgren/H.-J. Fabry(ed.),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X;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335-340.
- Stubbs, D. L., *Number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9).
- Wenham, G. J., *Numbers: An Introduction & Commentary* (Tyndale OT Commentaries 4; Downers Grove, IL: IVP, 1981).
-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4).

## 검색어

민수기

올슨

구세대

신세대

호르마

거시구조

# The Reconsideration of the Macro-structure of the Book of Numbers

Jae Gu Kim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h.D.

The book of Numbers had caused a vexing problem related to its literary structure to Old Testament scholarship. In 1985, D. T. Olson's book,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opened a new era to the field of the study on Numbers' macro-literary structure. Olson divided the book of Numbers into two parts, chaps. 1-25 (the death of the old generation) and 26-36 (the birth of the new generation). Since then, his book has taken a place among the scholars who study the book of Numbers should consider. But this paper intends to argue against Olson's view and to present a more reliable macrostructure of the book. I contend that chaps. 1-20 deal with the death of the old generation and chap. 21 shows the hopeful start of the new generation.

In finding its integral literary structure, B. S. Childs' canonical approach is employed because this method sees the book of Numbers as a unified whole. To present a more persuasive structure,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macrostructure, firstly, in the book of Numbers, secondly, in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Pentateuch, and, thirdly, in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Hexateuch.

Firstly, in the book, Numbers 11:1-3 functions to outline what is to come to the old generation and Numbers 21:1-3 functions to sum

up what is to come to the new. Numbers 11:1-3 tells that the fire of Yahweh consumed some outlying parts of the camp.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demise of the old generation. The camp of Israel consists of three parts, the outer (the twelve tribes), the inner (the Levites), and the center (Moses, Aaron, Aaron's sons). This three part camp collapses one after another, first, the twelve tribes (11:4-14:45), second, the Levites (16:1-17:13), and third, Moses and Aaron(20:1-29). Finally, after all these failures, Numbers 21:1-3 presents the victory of the new generation as a turning point.

Secondly, the comparison between Numbers and Deuteronomy reveals the clear demarcation of the old generation and the new. Deuteronomy tells that the entire old generation had perished until they crossed the Wadi Zered (Deut 2:13-15). In Numbers, the event of the old generation crossing Wadi Zered is reported in Numbers 21:12. Then the comparison of the two books clearly proves that the turning point from the old generation to the new is at Numbers 21.

Thirdly, in the Hexateuch, the old generation and the new have the same stages of faith journey. The Pharaoh of Egypt fears the old generation because of their numbers and strength, worries and orders to kill them (Exod 1). Balak, king of Moab, fears the new generation because of their numbers and strength, worries and orders to curse them (Num 22). The two kings' behavior to remove the Israelites is the same and the result is also the same (Exod 1-2; Num 23-24). Then the old generation are saved by God and make a covenant with God at Sinai (Exod 19-24), and the new are also saved by God and make a covenant with God at the plains of Moab (Deut 1-34). Finally, the old generation break the covenant and perish in the wilderness (Num 11-

20), but the new keep the covenant and conquer the Promised Land (Josh 1-24).

These comparisons between the old generation and the new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shift in generation does not occur between Numbers 25 and 26, but between Numbers 20 and 21.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obvious ideas for the macrostructure of the book of Numbers.

### **Keywords**

The Book of Numbers

Olson

Old Generation

New Generation

Hormah

Macro-Structure

- 투고일: 2017년 1월 13일
- 심사일: 2017년 2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6일